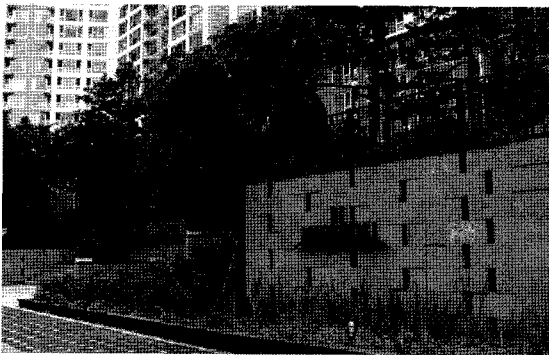


# 적용사례를 통해 알아본 미래 공동주택 환경디자인의 방향

## -동일하이빌 아파트 사례를 통하여-

박은정

동일하이빌 상품기획실 (ppsilver@highvill.co.kr)



환경디자인은 건축, 인테리어, 조경, 시각, 제품디자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디자인분야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마스터플랜을 기획,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휴지통, 가로등, 수목보호판, 자전거보관대의 시설물 디자인에서부터 건축물의 외관 마감재 및 색채, 더 나아가 도시의 환경 및 색채계획 등 거리에 서부터 도시전체에 이르기까지 환경디자인의 영역은 무한하다.

### 환경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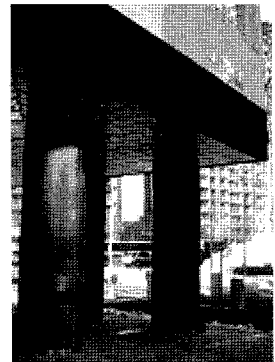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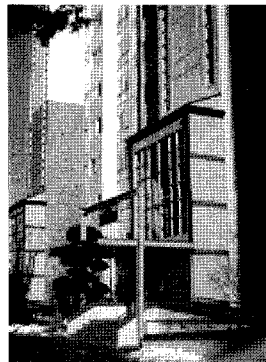
환경디자인은 개별 디자인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즉 건축, 인테리어, 조경, 시각, 제품디자인 등의 각 분야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다. 유형의 다양화가 다양한 개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듯, 무분

별한 디자인의 남발을 제한하고 통일성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경디자인의 중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절제와 조화가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잘 만들어진 안경 자체의 디자인보다 그 뒤에 있는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아파트 건축은 건축설계도면과 조정설계도면에 충실하게 시공되어지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시공기간동안 날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주거는 유행을 우선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질적 수준을 추구해야한다. 그러나,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만 손뼉아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신의 트렌드가 적용된 고급스럽고 세련된 집을 갖기 원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특화설계 즉 지금의 환경디자인을 교육정책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특화설계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고, 마땅히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도 드문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인회사가 아닌 각 분야의 시공업체에서 특화설계를 진행하게 되면서 디자인의 열악함이 수반되었다. 준공시점에 다르다 보니 장식위주의 특화설계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특화 아이템이라고 해봤자 옥탑의 장식구조물, 주동출입구 상부구조물, 측벽의 장식물딩 등 치장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공사비 증액의 한계도 한몫을 하여 값싼 저급 자재를 사용하여 결



만 화려하게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불협화음만 내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특화설계가 가진 한계였다. 얼마 남지 않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재와 적절치 않은 시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후에 하자보수의 발생을 막을 길이 없었다. 또한 초기 건축설계 및 조경설계의 방향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마구 흐트러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마치 나이든 노인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처럼 보였다. 이는 도시환경측면에서 디자인 오류로 인한 시각적 공해와도 같았다.

오늘날 각 설계 전문 집단에서는 지난 과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간구하게 되었다. 건축 설계시 간과했던 부분과 잘못된 설계부분을 찾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설계 초기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풀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고 컨셉을 설정하는 등 단지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을 우위에 둔 환경디자인을 도입하였다. 정체성 없이 무분별한 장식을 배제하고, 완성도 높은 디테일과 세련된 마감기법 등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디자인의 도입은 입주자들의 만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작게는 단지환경 개선에서부터 크게는 도시환경 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문화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례를 통하여 그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D 아파트는 '더 좋은집을 위한 맨처음 생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주거환경을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D 아파트의 단지환경이 입주자와 경쟁 건설사들의 이목을 받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과거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였으며, 주거가 가지고 가야할 모습, 즉 주거의 본질을 인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D 아파트의 단지환경은 여타 다른 브랜드가 따라가지 못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건축을 이해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경설계로 단지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자연환경을 제공, 만족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단지에 진입하면 녹음이 들어선 것과 같이 싱그러운 숲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숲 속에 환경디자인을 통한 감각적인 시설물의 배치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잘 짜여진 단지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즉 스트리트퍼니처(난간, 우편물수취함,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등), 돌출구조물(드라이에어리어, 채광창, 지하출입계단실 등), 단지 출입구 및 주동출입구, 부대시설의 마감재 및 패턴계획, 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 계획 등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단지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시공 중인 화성 봉담 D 아파트는 단지의 전체적인 높낮이 차이를 고려해 동별로 높낮이가 다른 계단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단지 전체에서 최대한 인위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일어로 단지 외부의 계곡물을 단지 내부로 끌어들여 높낮이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조성될 실개천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기초공사시 애로사항이 생기긴



하지만 D 아파트의 외관과 조경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게 된다.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건축, 조경, 토목, 구조, 환경디자인 등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주거단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디자인부분의 몫이다. 각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전체의 조화를 목표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건축설계와 조경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통합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한 각 부분의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다. 현장 개설 후 선 시공된 단계에서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던 과거의 소극적인 환경디자인의 역할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통합디자인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설계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한 최선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색채는 환경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병풍처럼 높고 긴 건축물들의 집합체가 보여주는 단지의 외형은 어떤 색채와 패턴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단지의 품격이 결정되어진다. 경쟁적인 특화 위주의 홍보 전략에 의해 계획되었던 색채 계획은 의미 없는 유형만을 생산하여 도시의 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인해 각 도시마다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기관을 두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무분별한 색채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하이빌 아파트에서는 디자인 초기에서부터 전반적인 색채계획을 진행, 그래픽에서부터 재료사용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색채를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안정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단지를 진입하며 마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문주는 입주민들에게 자신의 집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외부인들에게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짐작할 수 있는 인식성 확보를



위한 아이템이다. 각 출입구에 설치되어지는 문주는 보통 게이트 형식과 경비실 통합 게이트형, 단독형으로 구분되며 단지의 전체적인 컨셉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간결하고 웅장한 구조형식을 띄고 있다. 외부에서의 빈번한 출입이 있는 곳으로 강도가 높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여 브랜드 색채와 그래픽, 소재들을 사용,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주동출입구의 경우 공간과 공간을 분절하고 이어주는 1차적 기능 이외에 입주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무분별한 장식을 적용한 주동출입구의 경우 전체적인 단지의 흐름을 깨뜨리며 이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작은 디테일이 전체 형태를 결정하듯, 구성요소인 핸드레일, 우편물수취함, 엘리베이터 등 공사 막바지에 놓일 수 있는 아이템을 보다 완성도 있게 토탈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얼마전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신정동 D 아파트의 경우, 주동 진입부 외관디자인은 간결한 매스에 고급 자재와 디테일을 적용함으로써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외형을 탄생시켰다. 세대 출입구

고 완성도 높은 마감기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주거환경으로 개선시킨 것이다.

아파트 저층부의 피로티는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1차적인 기능이외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건설사들이 피로티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고 입주자들도 자신들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피로티엔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 봉담 D 아파트는 입주민의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피로티를 제2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란, 벽으로 둘러싸여 이웃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곳이 아닌, 대화가 있고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부대시설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노인정, 보육시설 등을 일컬으며 최근 공동주택은 작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부대시설은 영어마을,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노래방, 영화관,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주거환경의 문화적 접목의 경향을 띄고 있다. 즉 단지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해지고 여가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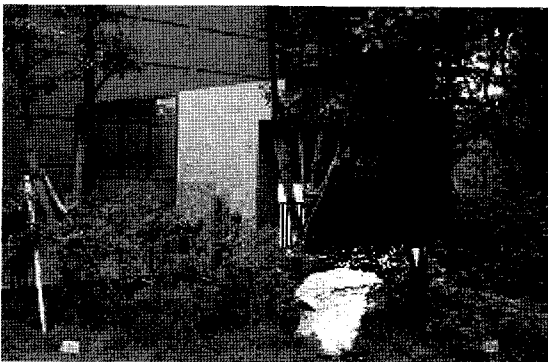


이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전체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급자재와 색채계획을 통하여 계획한다.

중전의 어둡고 무거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인공 조명만으로 의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상의 자연채광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D 아파트의 경우 다른 단지와 차별화 되는 채광 시스템을 디자인과 결합하여 지상들출물이란 느낌보다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 객체로 인식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 공간이 또 다른 지상공간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의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자연식재를 이용한 별도의 조경계획을 하고 있다.

D 아파트는 자연친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그 속에 어우러지는 컬러를 계획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부여하는 환경디자인을 하고 있다. 위 D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이 각 건설사는 단지외부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개발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로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디자인 전문가들은 경쟁위주의 디자인 생성에 신경 쓰기에 앞서 전체 지역 환경을 이





해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시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개선에 기초가 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④